

천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끝>

39 백암산 백양사

단풍나무 우거진 길을 걷는다. 백양사 인근에는 단풍잎이 유독 작은 단풍나무가 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풍나무인데, 이파리가 양쪽맞은 아기 손 같다고 해서 아기단풍이라 불린다. 언 손을 흔들고 있는 아기 단풍잎에는 맞추며, 물소리로 마음을 씻으며 올라가니, 어느새 쌍계루다. 잎 하나 없는, 몇 백 년 되었다는 물푸레나무는 제 그림자를 못에 드리웠다. 물푸레나무 그림자를 데려가지 못함을 슬퍼하는지, 물소리가 차고 서럽게 들린다. 주위 온 비자 열매를 던져주자, 물고기들이 때로 물려온다. 몇 마리가 수면 위로 오르자, 관광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친다.

천진암 가는 길로 오른다. 우뚝 선 백암의 이마가 높다. 백암산 백양사.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당시의 이름은 백암사였다. 이후 중창을 거듭하다가, 1034년 중원 선사가 크게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렸다. 현재의 절 이름은 조선 선조 때의 환양 선사와 관련이 있다. 선사가 영천암에서 설법을 하는데, 법회 3일째 되는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7일간 계속된 법회가 끝나는 날, 선사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흰 양이,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1034년 보수후 정토사로 불러 선사설법...꿈 나타나 백양사로

되었다"라고 말하며 선사에게 절을 하였다. 그 후 절 이름을 백암사라고 고쳐 불렀다.

진신사리탑으로 오른다. 탑의 층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인 게 특이하다. 팔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팔층으로 쌓은 것이라 한다. 마음은 시끄럽고, 나라도 소란스럽다. 2500여 년 전의 신타르타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울 뿐이다. 그 높은 경지를 어찌 다다를 수 있으랴? 다만 마음을 순하게 하자 다짐을 하며, 대웅전으로 향한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부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천년이 거듭 흘렀어도 부처의 법은 굳건히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인간들이 그 법을 보지 못하고, 왔다갔다 할뿐이다. 또 천년이 거듭 흘러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말씀이 곧 죽비였을 그 가르침을 새기며 마을로 간다.

마을의 이름은 가인(加仁), 풍경부터가 어질다. 죄를 풀고 들었다기도 절을 하고 나갈만하다. 입구에는 수십 통의 벌통이 놓여 있다. 때가우(거위) 한 마리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 마을지킴이인 셈이다. "백양사 피치감, 백양사 밖에 없어요."

주렁주렁 매달린 귤감을 가리키며, 감의 종류를 묻자, 박수연(68)씨가 대답한다. 귤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예 귤감 말리는 곳을 따로 만들었다.

"지금은 인자 다 못평가 그래. 산 속 새가 많이 있죠. 옛날 어른들이 다 절뚝한 것이죠."

모든 감나무의 뿌리는 고욤나무이다. 귤감을 만들 때 상자 단위로 파는데, 작년에는 이만 오천 원에 사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봉시 같은 것은 한 상자에 스물 댓 개, 저 짜잘한 것은 백 개도 넘고 그래요."

나무가 절 것이라, 마을에서 감을 따서 깎고 귤감을 만든 후 일부를 부처님 전에 올리라고 가져다준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그 땅들이 다 백양사 개발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농사는 거의 없다. 대개의 주민들은 한봉을 하거나 귤감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한봉 30통이나 돼요. 요새는 뉘, 꿀을 꿀이라고 하요. 뉘, 다 설법이라 하제."

마을의 지명을 물었더니, 식당과 주차장이 있는 곳은 '손마실'이라 했고, 성보관 자리는 '육과모텔'이라 불렀다고 한다.

"절 하고는 가차이 있죠. 뉘 일 있고 그러면 다 가서 해주고, 요 마을에 서는 절 혜택을 안 볼 수가 없제."

현재는 17호쯤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전에는 70호 가량 살았다. 그 중 스님의 속가가 다섯 집 가량이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도 없고 하니 살아가는 길이 막막해 보였다.

"속은 다 끝났어요. 정부에서 인자 고차서 민박을 해라, 그래서 현 놈의 집구석 고차고 며 하껴여? 그래 웅자도 좀 받고 그래서 다진 거제. 그렇게 인자, 빛도 좀 있고 그래제."

처마 아래 굵고 큰 박이 덩그러니 매달린 박씨 집을 나와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간다.

아주머니 한 사람이 평상에 앉아 귤감을 깎고 있다. 무슨 감이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잘 안다며 육상 위로 올라가라 한다. 육상 위에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요거이 쥘 존 거요. 고동시라고. 그 다음으로는 상추감, 잔 것은 고씨고요. 단감이나 대봉시 같은 것은 창사가 많아요. 고시라는 거는 창사가 없어요. 그래서 번비 걱정 같은 거 안 생기죠. 대봉 있고, 반시란 것도 있고, 배중시도 있고, 배죽해 가지고 고동시만 해요." 감의 종류도 많고, 이름들도 예쁘다. 감에 창사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 설명을 들으니, 감피치 쪽에 붙은 흰 속을 창사라 한다.

허리가 다져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류순천(67)씨. 아내(김선남·56)는 감을 깎고, 남편은 그것을 껍데기 벗겨서 말린다. 집이 꽤 크기에 민박 좀 되느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포도시 내 집 갖고 있다가 들으면 받고 안 들으면 안 받고 그래요. 잘 해 놓은 집은 피알도 하고 인터넷에 띄워 갖고 있는 모양인데, 한두 집은 잘 되어요."

먹고사는 문제가 큰 시골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은화하고 친절하다. 어질고 어질어 법이 없어도 아름다울 것 같다. 겨우 손뼉 끝이지만, 숨어 있던 부처가 내 안에서 나오려 한다. 마음이 참 맑아진다.

정성=이대홍 객원기자



백양사 쌍계루(사진 위)와 삼성각(사진 아래)

호박꽃 호롱불 같은 사람

국립공원자원활동가 박봉남



"굴참은 수피가 굵게 갈라져요. 갈참은 때가 부석부석 부서지는 것 같고, 굴참은 도토리가 작아 쫄병이라서 그렇고, 신갈은 신발 밑창으로 썼어요. 딱딱나무는 잎이 커서 딱 밑에 깔았대요. 그러면 딱이 안 식었대요."

"국립공원 자원활동가'로 봉사를 하며, 백양사 산책로를 직접 가꾸기도 하는 박봉남(40·사진)씨는 활동가들이 꼽는 백양사 생태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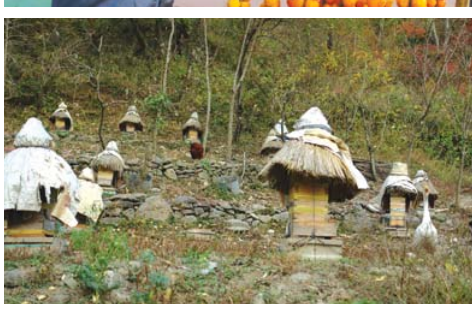
"비자나무 자생 복방 한계선이 백양사인데, 천연기념물이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번호표 매겨 관리하고 있어요. 살충 효과가 있어서 회충에 좋고, 비독편을 만드는데 최고예요. 알을 놓으면 그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모양 같아요?"

그가 비자나무 열매 하나를 보여주며 묻는다. 아몬드 같다고 하더니,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은 새 같아요"라고 말한다. 정말 비자 열매에는 작은 새가 박혀있다. 새다. 작은 새다. 자원활동가들은 무료로 국립공원 안내나 보존 같은 일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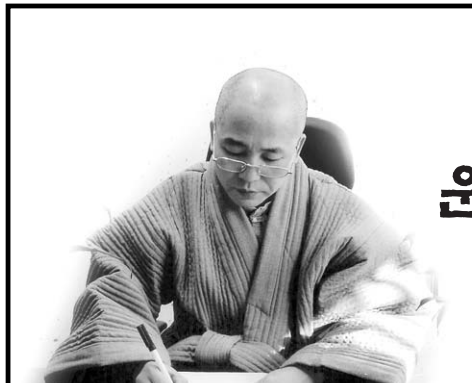
"지체 장애분들 모실 때, 안 보이는 분에게 보이게끔 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저기 새가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갑니다. 토끼풀도 같이 뜯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낀다.

"반딧불이가 많아, 여름이 오면 대단해요. 아이들이랑 올 때는 반딧불을 호박꽃 속에 넣으면 호롱불이 되잖아요. 그런 것 보여주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눈에는, 미소 띤 그의 얼굴이, 반딧불 반짝이는 호박꽃 호롱불로 보였다.




백양사 아랫마을인 가인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귤감과 벌꿀이다. 감을 껍데기 벗기는 류순천(67)씨의 모습(사진 위)과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벌통(사진 아래).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明인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사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대한민국 운명록

운命錄

대한민국 스님 직강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용을 가진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중개!

한국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중, 급체, 기절, 경기 등)
- 학생 포교(교과생, 대학생 등)
- 전통따주기도사로 활동

강좌세부 내용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신비한 비상따주기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5행으로 본 인체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작명 비법
- 수치의 비법
- 수상 보감, 내·외 공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40만원(순항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부산교육장(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35만원(숙식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츄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